

# 드디어 ‘그들’이 돌아온다… ‘틀’을 깨고 ‘판’을 바꾼다

KIA, 오늘부터 NC와 홈 4연전…후반기 본격 레이스 돌입

이의리 출격, 김선빈·나성범 복귀 임박 투·타 무게감 ‘↑’  
‘위기 속 깨어난 존재감’…백업 자원과 시너지 효과 기대  
불펜 안정화·득점 결정력 보강 ‘과제’, 체력 안배도 ‘관전’



전반기를 리그 4위(45승 40패 3무)로 마친 KIA 타 이거즈가 후반기 일정에 돌입한다.  
17일 NC와의 홈 4연전을 시작으로 2년 연속 가을야구와 한국시리즈 2연패에 도전하는 여정이 본격화된다.  
KBO리그는 전체 720경기 중 61.1%인 440경기를 마친 상황. 후반기에는 280경기만이 남았다. KIA로선 남은 40%의 일정 속에서 상위권 확보를 위한 치열한 싸움을 이어가야 한다.  
무엇보다 긍정적인 변화는 시즌 초반부터 발목을 잡았던 전력 공백이 점차 해소되고 있다는 점이다. 복귀자들의 합류로 전력은 빠르게 ‘완전체’에 가까워지고 있다.

주축 부상선수 복귀…전력 ‘숨통’

먼저 마운드엔 ‘좌완 에이스’ 이의리가 돌아온다. 지난해 6월 팔꿈치 수술 후 긴 재활을 거친 그는 최근 퓨처스리그에서 실전 등판을 마쳤고, NC와의 4연전 중 한 경기에 선발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  
이의리가 성공적으로 선발 로테이션에 안착한다면, 마운드 재편과 함께 운용의 폭도 넓어질 수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불펜진의 부담을 줄이고, 결과적으로 마운드의 유연성과 짜임새를 합

께 끌어올리는 결정적 계기가 된다.  
타선도 점차 재정비의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오랜 이탈 끝에 김선빈과 나성범의 복귀가 임박했고, 8월 중 김도영까지 가세할 경우 중심 타선의 무게감과 공격 밸런스는 확연히 달라질 전망이다.  
이들 주축의 복귀는 단순한 전력 보강을 넘어, 팀 전체의 타격 흐름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특히 전반기 내내 공백을 메우며 버텨준 오선우, 김호령, 고종욱 등 백업 자원들과의 시너지가 기대된다. 실전 감각과 자신감을 얻은 이들의 활약이 이어진다면, KIA 타선은 더 강하고 유기적인 형태로 재편될 수 있다.

불펜과 결정력, 풀어야 할 과제

그러나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 않다. 후반기 돌입과 동시에 마주한 첫 과제는 불펜 재정비다. 전반기 KIA 불펜의 평균자책점은 4.6으로 리그 9위, WHIP(1.63)과 피안타율(0.280) 등 대부분의 지표도 리그 하위권이다. 6월에는 반등 조짐을 보였지만, 7월 들어 다시 흔들리며 불안 요소가 노출됐다. 현재 불펜은 특정 자원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다. 정해영·조상우 등 필승조에 집중된 부담을 나눌 수 있도록, 새로운 조합 구성과 보다 유연한 운용 전략이 절실한 시점이다.  
타선에서는 찬스를 살리는 ‘결정력’ 회복이 관



이의리

건이다. 전반기 팀 득점권 타율은 0.257로 리그 8위에 그쳤다. 평균 득점은 리그 4위 수준이지만, 실질적인 흐름은 ‘풀긴 장면이 잦았던 타선’이라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 경기당 평균 7.9개의 잔루는 리그에서 손꼽히게 많은 수치로, 득점 기회를 살리지 못한 장면이 그만큼 많았다는 방증이다.

체력 안배 변수…NC 4연전의 의미

체력 안배도 시즌 후반을 좌우할 핵심 변수다.



나성범

더블헤더와 연전이 집중된 후반기 일정은 더위와 겹쳐 선수단의 체력 소모를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주축 선수들의 피로 누적은 경기 후반 집중력 저하와 직결될 수 있다. 따라서 벤치 자원의 유기적 활용과 상황별 로스터운 용이 요구된다.  
이런 가운데 NC와의 4연전은 단순한 후반기 시작 이상으로 의미가 깊다. 시즌 흐름의 분수령이자, 복귀 전력들을 실제 경기에서 얼마나 빠르게 전력화할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시험대다.  
게다가 이후에는 LG, 두산, 한화 등 강팀들과의 맞대결이 이어진다. 특히 후반기 초반 16경기



김선빈

〈KIA 타이거즈 제공〉

중 13경기를 광주 홈에서 치르는 일정은, 전력 복귀와 경기력 정비에 있어 결정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  
반면, 중위권 팀 간 승차가 촘촘한 만큼 초반 흐름에서 밀릴 경우 전체 순위 경쟁에서 주도권을 잃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후반기 초반 흐름이 전체 판도를 좌우할 수 있다.”  
이범호 감독이 남긴 이 말처럼, KIA는 후반기 첫 단추를 어떻게 꿰느냐에 따라 ‘2연패’라는 목표의 현실성도 함께 결정될 전망이다.  
/주홍철 기자

## 광주여대 오예진, 전국대학양궁선수권 2관왕

여자대학부 70m·30m ‘金 명중’…조선대 최우진 50m ‘金’

광주여대 오예진(사진)이 제28회 한국대학 양궁선수권대회에서 2관왕을 차지했다.  
2025 여자양궁 국가대표 오예진은 16일 익산시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여자대학부 30m에서 350점을 쏜 2위 원성운(경희대·356점), 3위 윤혜림(창원대·355점)을 따돌리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전날 열린 70m경기에서 344점의 기록으로 첫 금메달을 획득한 오예진은 대회 2관왕에 올랐다.  
오예진은 지난달 29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제43회 대통령기 전국 남아양궁대회 여자대학부 개인전 결승에서 탁

해운(순천대)을 꺾고 대회 2연패를 달성하며 여자대학부를 평정했다.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퀼리파케이션 개인종합 1위(1천381점)를 기록한 오예진은 17일부터 올림픽라운드로 열리는 개인전과 단체전에서 추가 금메달에 도전한다.  
여자대학부 50m에서는 이수연(광주여대)이 동메달을 따냈다.  
이수연은 338점을 쏜 원성운(경희대·343점), 윤혜림(창원대·341점)에 이어 김수아(국립경국대·338점), 한주희(동서대·338점), 조수혜(한체대·338점)와 함께 공동 동메달을 차지했다.  
/박희중 기자



순천대 탁해운은 60m 경기에서 346점을 기록하며 원성운(경희대·347점)에 이어 은메달을 따냈다.  
남자대학부에서는 조선대 최우진이 50m에서 ‘금빛 과녁’을 명중시켰다.  
335점을 기록한 최우진은 강민승(계명대·335점), 이진호(배재대·335점)와 함께 공동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다.  
/박희중 기자

한국축구, 사상 첫 한일전 3연패…안방서 동아시아컵 우승 내뱉



지난 15일 열린 2025년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동아시아컵) 남자부 최종 3차전 한국과 일본의 경기. 0대1로 패한 대한민국 선수들이 아쉬워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전술도, 새 얼굴도 없었다 명쾌한 해답없이 물음표만…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까지 남은 시간은 1년 남짓이다.  
홍명보 감독은 안방에서 열린 2025 동아시아 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을 통해 내용과 결과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자 했다.  
홍명보호는 월드컵에 대비해 경쟁력 있는 새 얼굴을 발굴하기 위한 시험대로 동아시아컵을 치르겠다고 선언했고 변형 스리백이라는 전술도 처음으로 적용했다. 그러나 홈에서 우승컵을 일본에 내주며 결과를 내지 못했다.  
2021년 3월 일본 요코하마에서 치른 평가전과 2022년 7월 나고야에서 열린 동아시아컵 맞대결에서 거꾸 0-3으로 진 한국은 이날 0-1로 패하며 한일전 3연패를 떠안았다.  
한일전에서 한국이 3연패를 당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1차전 중국, 2차전 홍콩 등 약팀을 상대로는 무리 없이 경기를 풀어 나갔던 홍명보호의 변형 스리백은 3차전 상대이자 동아시아 최강인 일본을 만나서 전혀 힘을 쓰지 못했다.  
대부분 K리그로 구성된 한국은 J리그 울스 타급으로 명단을 짰던 일본이 고강도 압박을 가하자 후반 빌드업부터 무너졌다.  
압박에 당황한 수비진은 낮은 위치에서 공을

돌리는데 급급했고, 제대로 된 패스가 미드필더진으로 이어지지 않으며 후반 빌드업이 불가능해졌다.  
결국 정교하고 세밀한 패스에 의한 빌드업이 아닌 골키퍼의 롱킥으로 공을 전방에 일단 뿌려 놓는 단순하고 확률 낮은 패턴이 이어지면서 공 소유권을 일본에 넘겨줄 수밖에 없었다.  
홍명보 감독은 동아시아컵을 통해 경쟁력 있는 새 얼굴 발굴에 집중하겠다고도 했다.  
FIFA가 정한 A매치 기간이 아닌 터라 대표팀 핵심 멤버인 해외파가 모두 빠진 가운데 그간 대표팀에 부르지 못했던 선수들의 기량을 확인하는 차원이었다.  
대표팀 내 황인범과 호흡을 맞출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와 스트라이커 자리가 주된 시험 대상이었다.  
그러나 동아시아컵에서는 특별히 눈에 띄는 실력을 뽐내지 못해 누구도 경쟁에서 앞서 나가지 못한 모습이었다.  
특히 일본을 상대로는 서민우와 김진규가 중원에 섰으나 전반전 일본의 강한 압박에 답답한 흐름만 이어지며 대표팀의 고민을 깊게 했다.  
/연합뉴스

## 패배 잇은 광주FC, 수원 넘어 전북 ‘정조준’

내일 패조의 페이스로 수원FC 원정…5경기 연속 무패 도전

A매치 휴식기를 통해 재충전을 마친 광주FC가 수원FC를 제압하고 상위권 도전에 박차를 가한다.  
광주는 오는 18일 오후 7시30분 수원종합운동장에서 하나은행 K리그1 2025 22라운드 수원FC와 원정 경기를 갖는다.  
최근 광주는 그야말로 패조의 페이스를 질주하고 있다. 최근 3경기인 제주, 대전, 안양을 상대로 2승 1무를 챙기며 상위권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데 성공했다. 여기에 코리아컵 예선 우승 후보 울산을 누르고 2년 연속 4강 진출에 성공하며 기세를 탔다.  
현재 광주는 리그 21경기에서 8승 7무 6패(승점 31), 5위를 기록하고 있다. 3, 4위와의 승점 차는 단 1점, 2위와의 격차 역시 4점에 불과하다. 향후 몇 경기 결과에 따라 선두 전북을 추격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설 수 있다.

긍정적인 대목은 공수 양면의 조화가 어우러지며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전방엔 기존 핵심 자원 아사니, 헤이스가 견재한 가운데 ‘베테랑’ 신창무, ‘유망주’ 정지훈 등이 연일 물오른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다양한 선수를 통해 공격 포인트가 생산되고 있다.  
또한 수비진에선 국가대표 센터백으로 거듭난 변준수를 필두로 한 포백 라인인 경기를 거듭함에 따라 안정감을 더하고 있다.  
광주는 4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질주하고 있는 가운데 실점은 단 3골밖에 허용하지 않았다. 특히 울산과 코리아컵 경기를 통해 부상 복귀전을 치른 김경민 골키퍼가 충분한 휴식을 통해 정상 컨디션을 찾은 만큼 최후방엔 더욱 힘이 실릴 예정이다. 이에 광주는 휴식이 이후 재개되는 일정에 강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박희중 기자



지난 5월 14일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코리아컵 4라운드 수원FC와의 경기에서 승부차기 끝에 승리를 거둔 광주FC 선수단이 기쁨을 나누고 있다. <광주FC 제공>

상위권 진입을 노리는 이정호 감독과 선수단이 좋은 흐름을 유지함과 동시에 무패 행진을 이어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희중 기자